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98호
5월 21일
2022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미스바기도회

동성애 옹호하는 평등법·차별금지법 반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미스바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 이하 수기총)를 비롯 (사)전국17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연합, 17개광역시도억불대응본부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 5월 15일(주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미스바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3만여명의 성도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차별금지법은 가짜 인권 앞세워 일반 국민 역차별·탄압하는 반민주 독재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구국기도회에서 한국보수시민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 측은 "이미 한법에는 19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독소조항을 넣고 가짜 인권을 앞세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악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인사말을 전한 김선규 목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레와 지진으로 지켜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강행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1부 기도회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 김진홍 목사(사랑두레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악법"이라며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들어 국력을 낭비하는 것은 인권이라는 핑계로 나라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짓"이라고 경계했다.

유민석 목사(경기총 수석상임회장)는 '신앙은 타협이 아니다' 제하의 설교를 통해 "믿음은 사수하는 것이다. 진리를 거스르는 어떤 세력에도 우리는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야 악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순서에서는 박한수 목사(예장통합교회 담임)의 사회로 하기호 목사(수기총 지도고문)의 개회선언, 박무강 선교사(성약비전)의 애국가 제창에 이어 권태진 목사(사)한기연 대표회장)·송태섭 목사(사)한교연 대표회장)의 격려사, 박종호 목사(수기총 사무총장)의 성명서 낭독, 김원평 전문위원장(전평연 운영위원장),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본부 대표),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주요셉 목사(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 윤치환 목사(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대 대표)의 자유발언이 있은 뒤 한효관 대표(건강한시회를위한국민연대)의 구호제창, 신상철 목사(경기총 상임회장)의 마치는 기도가 있었다.

이어진 3부에서는 주요셉 목사의 총진행으로 모든 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역에서 여의도공원까지 거리퍼레이드를 벌였다.

구르초장 만은시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용묵 목사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고전 15:10)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라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째, 전에 나는 죄인이었으나 지금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의인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둘째, 전에 나는 세상 사람이었으나 지금 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셋째, 전에 나는 미귀의 자식이었으나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넷째, 전에 나는 지옥백성이었으나 지금 나는 천국시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천국시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는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매사에 기쁘고 감사한 이유를 찾아냅니다. 둘째,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 받은 것을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디에서는 원망이나 시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렵지만 한편으로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이고 듣는 사람이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복음을 믿게 하여 줍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말하기를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시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로 수고하는 분량은 똑같지 않습니다. 주님을 섬겨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수고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나라와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더 많이 수고하게 됩니다.

주님을 섬겨 수고하는 것은 몸으로 수고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쓰는 수고도 있습니다. 재능을 제공하는 수고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사용하는 수고도 있습니다. 수고하여 얻은 재물을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고를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수고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열심과 인내도 생기지 않으며 주님을 섬겨 재물을 드리는 즐거움도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크게 주시고 장차 큰 영광과 즐거움에 참예하도록 작정하신 사람에게 수고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2030 청년들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4가지 이유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12일 국회 앞 반대 기자회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가 지난 5월 12일(목)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바로서다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특히 청년들이 받게 될 피해를 4가지로 정리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특히 2030 청년들이 받게 될 폐해는 정말 너무도 심각하다"며 이래 4가지의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① "차별금지법은 특히 여성의 안전과 편익, 그리고 생명을 위협한다."

바로서다는 "국내 모 대학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이유로 남녀공동화장실을 설치했다. 이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하나 없어진 것과 다름없다"며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모든 '여성전용' 시설이 마찬가지가 된다.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규정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화장실이나 여탕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여성 체육도 종말을 맞는다. 수영, 육상 등 신체적 역량이 절대적인 종목에서 스스로 여성이라고 규정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과 경쟁해 우승을 휩쓰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② "차별금지법은 취업시장에서 청년들의 노력을 배신한다."

바로서다는 "학력에 따른 차별이 금지되어 취업시장에서 '학력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되면, 청소년 시절을 학업에 몰두한 많은 청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며 "학습능력에서의 경쟁이 사라지면 물론 경쟁력도 사라진다. 기업이나 사업장은 '스펙' 위주로 채용하게 되어 기득권층의 '사다리 걷어차기'만 심화된다"고 했다.

③ "차별금지법은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학습과 성숙의 기회를 박탈한다."

이들은 "이미 이 시장으로서 합리적인 비판과 냉철하고 치열한 토론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 대학에서, 교수들은 낙인받히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학생들의 기분을 살피며 말을 사린다"며 "학생들도 서로의 눈치를 보느라 진솔하고 정당한 토론은커녕 듣기 좋은 이야기만 늘어놓게 되면, 현실 인지능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사라진다. 청년들은 알아서 스스로 위축되어 자기검열을 하고 암묵적 통제사회에 익숙해진다. 결국 대학 등 교육의 장은 사회 부적응자와 사회운동가만 양산해낸다"고 했다.

④ "차별금지법은 이동을 포함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다."

바로서다는 "전과자에 대한 차별금지로 인해 자녀들이 다니는 아동시설 등에서 아동성범죄 전과자 채용을 거부할 수 없다. 차별금지라는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보장을 포기하는 처사"라며 "특히 이동 성범죄는 범죄 재범률이 높다. 어린 나이에 성폭행 당한 그 억울한 평생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국회의원으로서 어떻게 이런 악법을 발의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자유의 가치와 상식에 반하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재 발의되어 있는 평등법의 완전 폐기와 국회의원들의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국가인권위의 차금법 필요 주장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한 선동에 가깝다

국민을 역차별하는 차금법과 인권의식과는 다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국가인권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2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인데, 여기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67.2%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그럴까? 여론 조사란 내용의 요약한 것을 보면, 국가인권위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는 질문에 66.6%가 답했다고 한다. 또 차별해소는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한다가 75%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2%가 나왔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타당성, 적합성, 공정성, 객관성을 띤 여론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며, 그 내용에 담으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를 사회적 문제라고 보느냐, 그리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식의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답할 수밖에 없다.

정말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냐를 물으려면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밝히고, 그것들에 대한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차별금지법으로 입법발의된 내용 가운데 대표소이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4-5가지가 있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정체성' '성적지향'으로 결국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를어길 경우 선량한 국민들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보라. 또 그래야만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정말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천부적 인권 조항들에 묻히기는 식으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된다.

국가 기관이 그것도 국민의 인권을 최일선에서 다룬다는 기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대부분의 양심적이고 종교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라는 빌미로 선동에 가까운 주장을 하면서까지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은 황당하다 못해 국가 기관의 존폐를 의심케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의 내용도 잘 모른다. 그러나 '차별하지 말자'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런 심리를 이용하여 국가 기관이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악법의 독소조항은 숨긴 채, 이를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라며 밝히는 것은 국가 기관의 행태와 신뢰성을 급격히 떨어트리는 것이 된다.

국가인권위의 이런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에서도 국가인권위의 질문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다. 어느 네티즌은 "편된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 결과는 게재가치가 없다. 지난번에도 차별금지에 방점 찍은 설문으로 90% 가까운 찬성결과를 들이밀었다. 그 후 다른 기관에서 차금법 의미를 고지하고 설문했을 때 30% 찬성도 안나왔다"고 항변한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차금법의 구체적 실상을 알려주고 여론 조사했나? 그러면 대부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네티즌도 "누굴 위한 차별금지법일까? 오히려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정상적인 성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재밌 없고 괘락만 좇고 사회를 어지럽히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라며 힐문한다.

한교연,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에 당부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윤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분명 국내외 제반 문제들을 '자유' 라는 기반 안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확실한 의지의 표현이자 절단기에 환영한다. 이 '자유' 가 지난 정부에서 외면해 온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라는 점에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임기 5년 동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를 만들겠다고 국민 앞에 굳게 약속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 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25분간의 취임사는 비록 전임자의 취임사처럼 멋진 미사여구는 없었지만 자유와 공정, 미래, 도약 등의 국정 운영 철학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국민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어려움을 딛고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재도약시키는 한편 지역, 계층, 세대를 넘어 국민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와 신념이 국민에게 그대로 전달됐으리라 본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에서 밝힌 대로 2중 불합리한 구체의 남발로 불평등 불공정의 대명사가 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한 정책의 전환을 적극 지지한다.

뭇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지난 정부의 '종북주의' 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북한에 굴실거리며 구호뿐인 '평화' 를 구걸해왔다. 북이 탄도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해도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느라 '도발' 이란 말 한마디 못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은 기공할 전술핵무기를 완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해 '대북전단지 금지법' 과 같은 반인권 악법을 졸속 제정해 대북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대북인권단체들의 입과 손발을 묶은 행위는 국제사회에 수치다. 지난 정부에서 유엔 대북 인권 공동 제안국에 4년 연속으로 빠진 것도 수치 정상으로 돌려놔야 한다.

이와 함께 윤 정부가 해야 할 당면과제가 한미동맹의 굳건한 회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원로목회자와 함께하는 수요예배 드려

매주 수요일 원로목사들 신앙교제 나눠

(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대표회장 송용필 목사) 한국원로목사교회(담임 박정우 목사)는 원로목회자와 함께하는 수요예배를 지난 5월 4일(수) 오전 11시 동 교회에서 드렸다.

이날 예배는 박정우 목사의 사회로 현광희 목사의 대표기도, 임광재 목사의 성경봉독, 원로목사들로 구성된 목자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도봉제일교회 원로 김진호 목사(기감 전 감독회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호 목사는 사 6: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이사야의 3가지 발견'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했다.

예배는 계속해서 박윤재 목사의 한국기도 후 합심기도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과 새 정부를 위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해', '(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를 위해' 이세홍 목사 인도로 기도를 했다.

이날 이정희 목사는 색소폰으로, 김광영·윤두호·김덕재 목사는 클라리넷으로 찬양연주를 해 많은 은혜를 끼쳤다.

원로목회자와 함께하는 수요예배는 문세광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어버이 날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사랑의 선물전달

해돋는마을, 월드뷰티핸즈 사랑으로 섬겨

5월 11일(수) 오전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한일 신생명나무교회 목사)은 소셜서비스 전문인 봉사기관(사)월드뷰티핸즈(회장 최애스더 신한대 뷰티헬스학과 교수)와 함께 "어버이날 감사 어르신 밥시랑나눔잔치 및 선물전달식"을 갖고 쪽방촌과 독거어르신, 거동불능한 어르신께 사랑의 밥나눔사역과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해돋는마을 이사장 장한일 목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랑의밥나눔 대체식과 과일 등 사랑한 여름을 준비하도록 여름 이불과 생필품, 비상의약품세트를 힘들고 외로운 어르신들과 북한 실향민 최100.003세 어르신 등 거동이 불능한 어르신을 방문하여 밥상과 함께 사랑의 선물을 드릴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다.

월드뷰티핸즈 회장 최애스더 교수는 "어버이날을 맞아 신한대뷰티서포터즈(SBS)의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캐네이션 제작과 손편지로 사랑의 마음을 전했으며 뷰티서비스와 생활기전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께 세탁기, 냉장고를 기증하는 등 쪽방촌 어르신께서 꼭 필요한 소셜서비스로 섬길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밥시랑 및 사랑의 선물전달식은 서울사랑의열매, 디딤돌사랑방, KC산업, 남서울교회 의료선교팀이 어버이날을 맞아 사랑의 마음을 모아 함께 섬겼다.

우크라 난민후원 사진전… 후원 당부

더펠로우십 한국IFCJ, 수익금 전액 난민대피소 지원에 사용

국제구호단체 재단법인 더펠로우십 한국IFCJ(이사장 윤미테)가 5월 22일까지 이요셉 작가와 함께 기로수길 기로문역에서 진행되는 난민후원 아트로스 프로젝트에 참가한다.

아트로스는 아트와 크로스의 만남으로 위로와 회복, 치유와 사랑을 전하는 유진갤러리 아티스트 홀페티브 프로젝트로 1000개의 아티스트 크로스를 목표로 크로스의 위로와 사랑의 마음을 담은 작가만의 독창적인 작업들을 선보이는 전시회다. 지난 2021년 시작된 아트크로스는 김태호, 채은미, 윤정선, 이규홍, 국대호, 김상열, 곽철 등 100여 작가들이 참여, 다양한 스토리와 의미가 담긴 크로스를 탄생시켰으며 이를 통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식과 치유를 전하고 있다.

이에 더펠로우십은 아트크로스 프로젝트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후원사진전 '평화를 노래하는 풍경' 을 기획, 위로와 치유의 사진을 찍어온 이요셉 디뮤젠티리 사진작가와 컬래버했다. 많은 공의 프로젝트에 재능을 나누어온 이요셉 작가는 전쟁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일상의 풍경을 글과 사진, 그림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나눔과 기부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본 전시의 수익금은 전액 우크라이나 본도와 국경의 난민대피소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다.

더펠로우십 관계자는 "더펠로우십 국제IFCJ는 지난 40년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구권과 이스라엘우크라이나에서 구호 활동을 펼쳐온 국제구호단체로서 현재에도 우크라이나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난민 대피소, 생필품 및 의료 서비스, 이스라엘 난민 이송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더펠로우십은 이픈 역사를 기억하며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돕는 국내 유일의 구호단체로 동구권과 이스라엘의 빈곤가정 및 디아스포라 난민을 돕는 다양한 구호사업과 함께 체다가 나눔 교육 및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성결교신학교 제14대 이사장 취임식

위성섭 이사장,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충실히 감당할 터"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총회장 이상문 목사) 신학교인 총회성결교신학교 제14대 이사장 위성섭 목사 취임예배가 지난 5월 3일(화) 총회본부에서 드려졌다. 이날 교단총무 이강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에서는 이사회 회계 염두선 목사의 기도, 총회장 이상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문 총회장은 "엘리사가 이끌었던 선지학교처럼 성결교신학교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느낄 수있는 구성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회 서기 신동선 목사의 사회로 취임식이 진행됐다. 위성섭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으니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충실히 임하겠다"며 "주님과 함께 일하고,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며 교제를 나누고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울러 "신대원과도 협력관계를 잘 형성해 효과적으로 상호 도우면서 동행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격려사를 한 성결교신대원 이사장 강대일 목사는 "오늘 취임한 이사장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있는 윈난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격려사를 전했으며, 성결교신학교 학장 윤평석 목사도 "다음세대 양육에 기쁨을 더하고 즐거움이 더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며 "온 학우들의 마음을 모아 축하드린다"고 축사를 전했다. 위성섭 목사는 성결대학교 신학과와 Southern California Seminary 목회학 석사, Talbot Seminary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그동안 총회 교육국 공과 편집위원, 성결신문 편집위원으로도 봉사했으며, 현재 인천지방회 부회장, 국내선교위원회 사무총장으로 헌신하고 있다.

'라이즈업밥티스트 연합기도회'

논산한빛교회에서 열린 6번째 연합기도회

100만 밥티스트 전도운동과 함께 전 교단적인 기도운동을 일으켜가고 있는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고명진 목사, 이하 침례교)가 '라이즈업밥티스트 연합기도회' 를 이어가며 부흥과 회복의 불씨를 퍼뜨리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논산 한빛교회(강신정 목사)에서 6번째 라이즈업밥티스트 연합기도회가 열린 가운데 다음세대와 세계선교, 부흥과 회복을 위한 2꼭한 기도들이 모아졌다.

환영사를 전한 총회장 고명진 목사는 "평생 한 번도 아버니의 말을 듣지 않았던 청개구리도 마지막 유언만큼은 들어드렸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인가. 온 땅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라며 "오늘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기남 권사(전국여성선교연합회 회장)의 인도로 진행된 기도회는 서성희 목사(충남세종침례교연합회장)의 대표기도, 다음세대 학생들의 특별찬양에 이어 김중식 목사(은항중앙침례교회)가 요 8:12 말씀을 본문으로 '빛과 어둠의 소리 없는 전쟁'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목포권기독교근대역사관 건립에 힘 보태

부활절연합예배 헌금 전액 역사관 건립 위해 전달

목포기독교교회연합회(회장 권용식 목사, 이하 목교연)는 올해 부활절연합예배에서 모아진 헌금 전액을 목포권기독교근대역사관 건립을 위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목교연은 4월 17일(주일) 북교동교회(김주현 목사)에서 회장 권용식 목사가 목포권기독교근대역사기념사업회 법인 부이사장 고삼수 장로에게 헌금 전액을 전달하고 기념관 건립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삼수 장로(남부교회)는 "선교사와 선조들의 선교정신을 이어받는 기념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교회들이 앞으로 3년간 교회예산의 1%를 기념관 건립을 위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각지에 숨겨져 있는 역사관 콘텐츠를 발굴하여 전국에서 가장 생명력 있는 역사관을 만들려고 한다"며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역사관 건립에 협력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목포권기독교근대역사관은 온금동 인근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대지면적 1100㎡(332.75평), 건축면적 1,854㎡(561평)로 계획하고 있다.

역사관 건립을 위한 헌금은 일반회원 '벽돌쌓기 헌금' 혹은 법인회원(6회원기업 후 연회비 10만 원)으로도 참여 가능하다.

1972년 개교 후 수많은 기독교지도자 배출

아신대, 개교 48주년 감사예배

신본주의와 복음주의의 이념에 힘써온 아신대학교가 지난 5월 9일(화) 오전 11시 30분 강당에서 "개교 제48주년 기념 감사예배" 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정홍열 총장의 사회로 유튜브 생중계와 현장예배를 병행하여 진행됐다.

림형천 목사(잠실교회)는 출 3:1~12 말씀을 본문으로 '불타는 떨기나무'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48년 전에 아시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학교가 바로 이 학교이다.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교회가 기도로 세운 학교이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 새워진 아신대학교의 48주년을 축하한다" 고 전했다.

설교 후에는 지금까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40년, 30년, 20년 및 10년 동안 함씨온 교수와 직원들에게 근속패를 수여했고, 본교 학부 및 대학원 동문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히 사역해온 홍순설 목사(이사/아신대64, 은전교회)와 이명숙 목사(신학과97, 방이교회)에게 자랑스런 동문상을 수여했다.

아신대학교는 국제적이고 교회연합적인 대학으로 1974년 개교 이후 지난 48년 동안 많은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현재 학부과정으로는 신학부(신학전공), 국제개발협력학부(국제개발협력전공, 글로벌영어전공, 중국어전공),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기독교교육(ACSI)전공, 미디어콘텐츠개발전공), 상담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청소년상담지도전공)가 있다.

생명의 말씀

중요한 인생과 중요한 시기에 깨어 있는 성도

(롬 13:11~14)

신 재 영 목사
· 예하성 총회장
· 새김천교회 담임

한 부자 집에 성실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그 노예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서 아주 성실하게 일을 잘 했으니 나는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한다. 강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면 낙원이 있는데 이곳을 떠나서 그곳에 가서 살아라." 이 노예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주인의 창고에서 평생을 먹고 살 모든 것을 마침 동안 배에 가득 옮겨 실은 이 노예는 자신이 살아야 할 낙원으로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노예는 한참을 항해하다가 뜻밖에 큰 폭풍을 만나 배는 파선되고 실었던 모든 것은 물속에 수장되고 자신만이 구사일생으로 한 섬으로 올라갔습니다. 섬 안으로 들어가니 그곳에는 뜻밖에도 화려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달려나와 "당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왕입니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땅에서 1년을 산 다음에는 다른 섬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당신이 가야할 섬은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곳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낙원이며 또 한곳은 지금도 화산이 터져서 유황불이 넘치는 지옥입니다. 당신은 어떤 곳으로 가고 싶습니까?" "우리 주인이 낙원에 가서 살므로 자유를 주었으니 당연히 낙원에 가서 살아야지요?" "모든 사람이 낙원 가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다 낙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왕으로 있을 동안에 잘 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낙원에 가든지 지옥에 던져지든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 배를 타고 강을 내려오다가 파선을 하여 올라간 섬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 떠날 곳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왕처럼 내가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사는 나에 따라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떤 곳에서 영원히 사는 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첫째로,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캄캄한 어두움이 짙게 깔린 어두운 밤의 세상입니다. 죄악과 거짓, 불의와 불신, 또한 온통 암흑사상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빙자하여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동성결혼, 동성연애의 합법화 법제화 추진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합니다. 동성애는 진리를 거역하는 타락한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이며, 동성애의 확산은 불법이 세상에 만연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성도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는 인간의 타락이 최고조로 달했음을 보여주는 현상 중에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눅 17:26-29). 여기서 롯의 때로 상징되는 소돔성은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 특별히 동성연애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영어로 sodomite라고 하면 동성연애자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본래 '소돔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돔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의 때와 같은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어두움의일을벗어버려야합니다.

엡 5:8-9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빛의 자녀이다.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더 이상 어둠이 아니다. 나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어두움은 더 이상 나를 상관이 없다"고 하는 절대 확신 속에서 어두움을 날마다 물리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어둠의 일을 6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방탕입니다. 둘째, 술 취함입니다. 셋째, 음란입니다. 넷째, 호색입니다. 다섯째, 쟁투입니다. 여섯째, 시기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날마다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감사로, 찬양으로, 헌신과 봉사의 삶으로, 성령충만함으로 벗어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두움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빛으로 드러내며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3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단정히 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사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지다가 깨어서 어두움의 일을 날마다 벗어 버리고 단정하게 사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깨어 있을 때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입어야 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 속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반통령(半統領)은 끝까지 반통령(反統領)의 자리를 지켰다

현 정권 들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의 공식적인 국무회의는 오늘로 끝났다. 그런데 이주 큰 국기문란(國基紊亂)을 결정하고 끝났다는 중론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 '검수완박'을 국회에서 동물 국회로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검수완관'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검수완박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노출되어 있다. 무엇보다 헌법기관인 검찰을 무력화시킴으로 힘을 가진 권력자들과 범죄자들 징치(懲治)하고 근절하기 어려워졌다. 결과적으로는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오늘녀 당초 오전 10시에 예정된 국무회의를몇 번씩 바꾸면서까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것은 거대 여당의 꼼수를 추인한 것이고, 국민들이 바라는 참된 정치 실종을 보여준 것이다.

현 정권에서 한 일이라고는 '대결정치'를 극대화시킨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지우와 민주주의와 대결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과 대결한 것이다. 그래서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현 대통령을 반통령(半統領)이라고 부른다.

이는 국가와 국민들이 불행한 일이다. 그저 국민들은 안 보이고,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위하고, 자신들에게 오게 될 정의에 대하여 방탄(防彈)을 씌우려는 욕망에 충실한 정권이었다.

대통령은 끝까지 반통령(半統領)의 모습을 보였다. 누가 뭐라고 해도, 검수완박은 대통령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현 대통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청와대를 떠나면서까지 그 만낯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반통령(半統領)은 끝까지 반통령(反統領)-국민들의 기대와 국가원수 기치에 반합의 자리를 지켰다. 최고 권력의 자리를 떠나면서까지 국민의 화합이나 국민들과 약자들의 보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지난 5년간 현 정권은 국민들에게 한없는 실망과 좌절감을 주었다. 내로남불, 자화자찬, 갑질치기, 국격 상실, 자유 희생, 민주주의 퇴보, 쇼통의 시대였다. 정말 국민들은 마지막 작은 선물이라도 기대했는데 그마저도 외면하니 무안할 따름이다.

우리나라에 다시는 반통령(半統領)이나 반통령(反統領)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동 정

대학총장포럼 정상운 회장 재신임

대학총장포럼 제4대 회장에 정상운 전 성결대 총장이 만장일치로 재선임됐다. 정상운 전 총장은 지난 2014년 출범한 대학총장포럼 초대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2018년부터 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대학총장포럼은 지난 5월 12일 개최된 대학총장포럼 제7회 정기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재신임 받았다.

기독교학술원, 영성학술포럼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이 지난 5월 13일(금) 양재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MZ세대와 4차산업혁명시대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37회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1부 경건회는 오성종 박사(전 칼빈대 신대원장)의 인도로, 백인용 목사·최성대 목사·우종구 목사의 기도, 이상직 박사(전 호서대 부총장)의 설교 순으로 진행했다.

신애라 "입양, 누구나 할 수 있다"

배우 신애라가 최근 '입양의 날'을 맞아 호산나교회 입양의 날 특별예배 다솜축제에서 간증을 전했다. 배우 신애라는 "저도 입양가정이긴 하지만, 입양가정이 흔치 않다. 예전부터 거창하게 생각한 적 없고 아이들을 좋아했다.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입양도 많이 하려는 생각을 했다. 입양은 어릴 때부터 계획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요안나 호사낙, 물망초人 상 수상

북한이탈주민과 국군포로 등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물망초가 제1회 물망초人 상에 요안나 호사낙(Joanna Zenona Hosaniak) 씨를 선정했다고 지난 5월 11일 밝혔다. 물망초에 따르면 요안나 호사낙 씨는 북한 인권상황 관련 보고서를 다수 집필했으며 특히, 2021년 유엔 북한결의안에 국군포로 및 그 후손의 인권 침해 문제가 최초 적시 되는데 공을 세웠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헐몬산교회** **말씀회복 축복성회**

"회복시키시고 심령을 붙드소서"(시51:12)

강 사 조갈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 23일(월) 저녁 · 24일(화) 낮
강 사 성기찬 목사 방어진순복음교회 · 24일(화) 저녁 · 25일(수) 낮
강 사 강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인문교회 · 25일(수) 저녁
강 사 최병일 목사 신평제일교회 · 26일(목) 낮
강 사 기호선 목사 과천순복음교회 · 26일(목) 저녁
담 임 김남순 목사 헐몬산교회 · 매일 새벽
(성폐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일시
2022년 5월 23일(월)~26일(목)
새벽 5시30분 · 오전 10시30분 · 저녁 7시

장소 및 문의
헐몬산교회(담임 김남순 목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1번길 91-16
(백곡리 산 113번지) 010)2415-2062

제주복음화를 새롭게 세우는 지방회!

제주지방회 정기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는 지난 4월 10일(주일) 오후 5시 30분 순복음만나교회에서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지방회 회원교회와 제주복음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지방회 총무 한영남 목사(빛내리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성중경 목사(제주드림교회)의 대표기도, 안재홍 목사(순복음만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안 목사는 마 27:32~44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을 참으셨던 한없는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를 온전히 의지하여, 자기중심의 신앙이 아닌,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증경지방회장 김건수 목사(제주한마음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정기지방회에서 2종 회무처리를 마친 후 현 임원인 회장 안재홍 목사, 총무 한영남 목사, 서기 성중경 목사를 그대로 유임시키기로 하고 정기지방회를 마쳤다.

코로나로 침체된 교회의 영적 쇄신 기도

부산지방회 정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4월 11일(월) 오전 11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순복음세움교회에서 정기지방회를 갖고 교단과 지방회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한편 지방회 새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김경옥 목사(순복음하늘소망교회)의 대표기도, 재무 김연옥 목사(행복한빛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롬 8:18-2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의인들의 모임'이라는 제목의 설교, 회계 최계순 목사(은혜순복음교회)의 한금기도, 증경지방회장 고영권 목사(순복음한세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2부 정기지방회에서는 지방회 모든 회무를 처리하고 새임원을 선출했다.

신임원은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세움교회), 부회장 김경옥 목사(하늘소망교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 회계 서희숙 목사(순복음비전교회), 재무 최계순 목사(은혜순복음교회)가 선출되었다.

회원들은 새로운 회기를 통해 그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침체된 교회의 영적 쇄신과 은혜 기운에 더욱 하나가 되는 지방회를 위해 기도하고, 세움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후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새로운교회, 원로목사 및 담임목사 취임예배

전라지방회

전라지방회(회장 백영자 목사)는 지난 4월 24일(주일) 오후 5시 새로운교회(전 새여수은혜와진리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김갑신 목사의 원로 추대 및 최규식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감사 예배를 드렸다.

창립31주년 주일에 거행된 1부 예배는 지방회 서기 · 회계 이태우 목사(선한빛교회)의 사회와 기도로 시작되어 권승철 목사(회복교회)의 성경봉독, 새로운교회 전진영 집사의 특송으로 이어졌다. 지방회장 백영자 목사는 딤전 1:12~17 말씀을 본문으로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취임하는 목사와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축복했다.

2부 원로목사 추대식에서 새로운교회 김갑신 목사는 원로목사로 추대되었고 청빙되어 온 최규식 목사가 성도 앞에서 서약하고 성도들의 지지 기운데 담임목사로 취임했다. 이어 증경지방회장 최남성 목사(동강순복음교회)의 축사와 새로운교회 서문석 장로의 한금기도 후 증경회장 최형택 목사의 축도로 모든 일정을 은혜롭게 마쳤다.

앞으로 새로운교회가 새로운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여수의 복음화와 세계선교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5월 월례회 및 단합대회 개최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5월 2일(월) 오전 11시 30분 청도군 풍각면에 위치한 순복음세움교회(담임 정기영 목사) 청도수양원에서 5월 월례회 및 단합대회를 갖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더욱 화합하는 지방회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김주성 목사(순복음만들레교회)의 대표기도, 김병주 목사(순복음열방교회)의 성경봉독, 증경지방회장 한순남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엡 4:11~13 말씀을 본문으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 정은무 목사(순복음빛된교회)의 한금기도, 증경지방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예배를 마치고 단합대회를 가진 회원들은 비쁜 사역 가운데 단합대회를 통해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모든 회원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길 축복하며 단합대회 일정을 마치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이번 단합대회에서 부산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는 코로나 19로 여러 운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방회원들을 섬기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푸짐한 식사와 정성을 담은 선물, 격려금 등을 준비해 골고루 나눠줌으로 어렵고 힘든 코로나 19 위기상황을 잘 극복하고 힘을 얻을 것을 당부했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장래의 꿈을!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집서,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지경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시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정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전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의 효능

1)페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긴종 염증을 다스림)
2 임세포 성장억제, 긴종 암의 예방(취실험)
(*고려대학교 손윤석 교수님 입증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 원함(대연구논문)
3 고혈압, 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토혈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문대연구논문)
4)호흡기 원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흥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김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탁식폴(고혈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뼈비 축시 개시
8)붉은홍 지방산 : 그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일모레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도움이 됨
*유방·충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찧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 · 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사학법 개정 대처방법과 기독학교의 미래

기독학교, 정체성 수호하려면 개정 사학법 단호하게 대처해야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은 지난 5월 12일(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 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제18-4차 정기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조희완 목사(청년선교본부장, 신정교회)가 좌정을 맡았으며, 박상진 교수(장신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상임이사)와 함승수 교수(숭실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또한 박호근 교수(한국체대 교육학, 전 서울시의원)와 우수호 목사(대광고 교목)가 패널로 참여했다.

박상진 교수는 "지난 2021년 8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져 올해 3월 25일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학법은 사립 초중등학교의 교원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여 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법 개정의 취지로서 사학의 교원임용 관련 비리 척결을 내세우지만, 이 사학법 개정은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시도 교육감이 직접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을 하고자 하는 사학 운영에 개입하여 통제력을 행사하는 위헌적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종교계 사립학교는 종교적 건학이념으로 설립된 사립학교로서 그 설립 목적을 구현하는 것이 학교의 존립 이유인 학교다. 이런 목적 구현을 위해서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교사를 임용하여, 종교적 기치관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자율성'을 꼽았다. 종교적 건학이념을 이루기 위해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성, 기치관과 역량을 지닌 교사를 임용할 수 있는 자율성, 건학이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인 구성의 자율성, 그리고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운영의 자율성 등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사학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박 교수가 지난 3월 21일 사학법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기독 사학 법인대표단 명의로 한탄 소원을 낸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2022 교육감 선거-한국교회 유권자 운동 출범식'을 열고 적극적 활동을 선언했다.

박 교수는 "한국교회 100인(명 서명운동 '기독교사학지정위원회(위원장 김신 전대법관)의 활동' '기독학부모(유권자) 운동' 등을 통해 기독교 사학의 건강한 존립을 위한 교육적, 법적,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신학적 고찰: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근거한 교육 공공성과 사립학교 자율성의 재개념화"를 주제로 발제한 함승수 교수는 "1974년 시행된 평준화 정책 이후 기독교학교를 포함한 사립학교는 준공립화되었고, 77회에 걸친 사립학교법 개정, 제7차 교육과정 개편 등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왔다."고 밝혔다.

감리교 단체들도 차별금지법안 폐기 촉구

9일 국회 앞에서 제정 반대 기자회견

최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릴레이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9일에는 감리교비로세우기연대(감비연),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웨성본), 감리회거룩성회복을위한협의회(감거협)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동성애는 인간의 극단적인 이기심과 쾌락주의의 절정으로서 이는 개인과 국가의 위기를 조성할 따름이다. 개인의 삶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도대체 이 법(차별금지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며 법이 제정되었을 때 향후 발생될 사안들을 국회의원들은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일에 앞장서는 의원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을 부정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는가? 알면서도 그렇다면 불효막심한 것"이라며 "모르고 제정하려 한다면 이제 일깨워줬으니 부모님에 대한 이를 위해서라도 이 악법을 폐기하라"고 했다.

이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출생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인류와 국가와 가정을 세우는 기둥과 같다. 이는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모든 인류에 해당하는 보편적 가치"라며 "우리의 선조들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인륜과 천륜에 순응하여 가정이 형성되었고 그 기초 위에 국가가 존립하였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후손들에게 이 찬란한 아치를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물려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며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 악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제정하려는 자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을 때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였을 것이나, 만일 이 악법을 통과하게 된다면 이후에는 가문의 수치로 여기게 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의 폐해가 드러날수록 누가 이 법을 발의하였고 제정하는 일에 동조하였는지 역사는 길이길이 기록을 남길 것이기에 이를 알게 된 후손들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ASSEMBLIES OF GOD

(학장 정 기 영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6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 광역시 광산구 록원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북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7-5181~3 FAX:02)2677-5181

숙취해소의 새 기준 간;쉼

간;쉼,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
- 간의 휴식이 필요하신 분
- 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
- 면역력 증진이 필요하신 분
-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

Q. 왜 코듐옥돌나물인가요?

1. 세계 최초 특허 보호 작물
2. 산청에서 최초로 육종 성공
3. 독성이 없는 천연소재
4. 면역력 증진 소재

속편한 발효효소 속엔짱

Q. 속편한 발효효소 속엔짱이 뭐에요?

속엔짱은 국산 메밀과 국산 콩을 장 유익균으로 순수배양하여 발효시킨 식품으로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동시에 다량함유한 새로운 개념의 신바이오틱스 발효식품입니다.

속편한 발효효소 속엔짱,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쾌변을 원하시는 분
- 혈액순환이 안되시는 분
- 소화가 잘 되지 않아 항상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
- 화학첨가물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

건강한 다이어트엔 속엔짱슬림

Q. 다이어트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속엔짱슬림,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먹으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
- 변비없는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
- 요요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

상담 및 구입 문의: 산청한방가족호텔 055-972-7000 총괄이사 한명점 목사 010-4564-9191

우크라이나 선교사 초청 기도회 개최

세기총, 선교사 16가정에 성금 전달도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화석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는 지난 5월 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신관 4층 크로스로드선교회 세미나실에서 '우크라이나 선교사 초청 기도회 및 성금 전달식'을 갖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을 후원하기 위한 성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성금 전달식은 지난 2월 초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의무적 출국이 요구되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국내 혹은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로 잠시 피해있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세기총이 모금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모인 성금을 전달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1부 기도회는 상임회장 이재희 목사의 기도에 이어 제대대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가 "이 시대에 누가 다윗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고시영 목사는 설교를 통해 "오늘의 시대는 정의가 무너지는 시대"라고 말하고 "국민에서 일어나는 여러 인간본성을 보면서 정의가 있는가 고민하게 된다"면서 "지금은 용기 있는 사람이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라, 돈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시대로 한 시대를 마감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시대에 인생을 끝내다고 하는 것이 슬프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서정승 선교사(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과 난민구호에 대한 보고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다.

합심기도 시간은 공동회장 김태성 목사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해',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의 안녕과 선교지 회복을 위해', 후원이사 김관중 목사가 "75만 재외동포와 3만 선교사를 위해" 각각 특별기도를 했으며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의 축도로 기도회를 마쳤다.

2부 성금 전달식은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의 인사말, 김호동 선교사(유기총 사무총장)의 격려사, 지구촌선교회 워십선교단(WCB) 오주윤 목사)의 찬양 순으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선교도 전쟁이며 영혼을 살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라고 말하고 "세기총에서 작은 성금을 모금해서 전달하게 됐다. 작은 성금이지만 함께 하는 동행자가 있다는 것에 위로와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화석 목사는 "매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는 빚진자이다. 이제 우리가 복음뿐 아니라, 모든 육신의 것을 함께 나눌 때 우크라이나에 복음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김호동 선교사도 격려사를 통해 "비록 지금은 힘든 전쟁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화가 변해 복이 되는 축복이 우크라이나에 나타나길 기도한다"면서 "서울에 있는 동안 영적 전쟁터에 들어가서 씻겨진 그들의 마음을 닫혀줄 방법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대표회장 신화석 목사가 윤상수 선교사(세기총 우크라이나 지회장)에게 성금을 전했으며, 배점선 선교사(KWMF 한인세계여성선교사회 회장)가 김복희 선교사(우크라이나)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김정휘 선교사(우크라이나 한선협 증경회장)가 인사한 뒤 모든 순서를 마쳤다.

코로나 위기 속 유일한 희망은 오직 교회

예장합동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총회장 배광식 목사)이 지난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강원도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제59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이하 목장기도회)를 진행했다. 합동측의 목장기도회는 엔도 코로나를 맞은 올해 약 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금번 회기 '은혜로운 동행기도운동'을 통해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에 기도를 통해 회복의 새 역사를 이끌고 있는 합동측은 이번 목장기도회에서도 오직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3일 내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강연과 기도회를 반복하기며, 쉴새없이 기도의 불을 지폈다.

총회장 배광식 목사는 코로나-로 무너진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여전히 교회임을 강조하며, '은혜로운 동행기도운동'이 교회의 제 역할을 찾기 위한 소명의 자리가 될 것을 희망했다.

배 목사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에 있으며, 교회 안에서 해답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서 "예배가 회복되므로 코로나로 움츠린 신앙적 활동이 모두 정상화되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 이 땅의 모든 성도의 가슴이 다시 한 번 뜨겁게 타오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는 동시에 기회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서 "은혜로운 동행기도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됐다. 오늘 다시 새로운 출발선 위에서 전국노회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의 불길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인사를 전한 서기 허은 목사는 "기도보다 중요한 것 없고, 기도만큼 먼저 해야 할 일도 없다"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린다"고 말했다.

임기 종료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 추진 및 검수완박법 통과 논평

북 정권의 핵 모라토리엄 해제 및 핵 선제 공격 무시한 문 정부의 종전선언 시도와 특정 두 사람을 위한 방탄법 통과 및 서명 공포는 헌법 불합치 행위다

5월 9일 지정(子正) 임기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에게 행운(幸運)을 기원하면서도 그가 추진했던 두 가지 헌법 불합치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 논평을 드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나는 그토록 오래동안 추진했으나 한반도 및 주변 정세와 맞지 않음으로 무산된 종전 선언 시도와 다른 하나는 야당 및 시민부 그리고 국민 절대다수의 반대에도 밀어부쳐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이다.

종전 선언이란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 언커크) 해체처럼 '유엔사 해체 및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져 국가안보 와해를 초래하는 것이다. 검수완박법 서명이란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비리정치인과 특권층의 비리를 은폐하여 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는 위한성을 지니고 있다.

종전선언은 2021년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후 즐기차게 동맹인 미국에게 동의를 구했고 지난 2월 바이칭 올림픽때 성사시키려고 지속적인 외교력 교섭을 해 문정권의 업적으로 삼으려고 했다. 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북한의 잇달은 미사일 실험과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 발사 실험. 그리고 3월 9일 대선에서 북한 정권을 주적(主敵)으로 삼는 윤석열 후보의 차기 대통령 당선 등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검수완박법이란 지난 주 5월 4일에 거대 여당이 국회에서 오전에 졸속 통과시키고 오후로 연기된 국무회의에서 서명 공포되었다. 국민 절대 다수가 검수완박법 처리에 반대했다. 그 이유는 이 법은 대통령과 정권 사람들이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셀프 방탄'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법안 공포까지 마쳐려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법 통과가 안 되면 "문재인 정권 사람 스무 명이 감옥에 갈 것"이라고 했다. 거대 여당이 이런 법안을 졸속 밀어붙이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연기하면서 서명 공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후퇴요 법치주의의 종언이란 하지 않을 수 없다. 참 정부는 자신들 패거리의 이익을 대변하지 말고 자신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전 국민과 나라의 번영대계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살펴나가는 문재인 정부가 집요하게 추구한 종전선언과 "정권방탄법"이라 불리우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그의 서명 공포(公布)에 대하여 반대하였고 큰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제 새로이 취임한 윤석열 새 정부가 종전선언이란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 국가안보에 위해(危害)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에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검수완박법은 특권층의 비리를 은폐하고 국가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고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이에 대해 법치주의적 대처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같이 천명하고자 한다.

1. 문재인 정권의 종전선언이란 실상은 평화 없는 평화 선언으로 정치적인 수식어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 있었던 불가침 조약(1938년 뮌헨협정, 1939년 독소 불가침 조약, 1941년 소일 불가침조약 등)은 지켜지지 않았고 그것은 전쟁 시발의 종이쪽지에 불과하였다. 1991년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 우크라이나가 소련 연방에서 독립했을 때 한반도 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었다. 1994년 12월 5일 부다페스트 협약에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고 NPT에 가입하면 미국과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겠다고 협약했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가 이를 파기하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한 것이다. 2022년 11월에 나토에 가입하려는 우크라이나에 대하여 러시아가 이를 저지하려고 러시아가 군대(17만 5천명)를 국경지대에 집결시켜 전쟁을 일으켰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 남북간에도 이미 많은 북한의 핵평화협정이 있었으나 북한은 이를 파기하고 핵을 개발하였다.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은 단지 정치적 수사어에 불과하며 그 내용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북한이 핵 폐기와 대량 살상 무기의 폐기 없이 오히려 핵무기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 종전선언이란 전혀 국사안보면에서 적절하지 않는 것이다. 우선시 평부 해체, 미군 철수를 담아내지 못하는 내용의 북한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없었다. 윤석열 새 정부는 실질적으로 효과없는 일을 무효화하며 새로운 매파적인 대북안보정책을 펴기 바란다.

2. 임기 끝까지 핵 선제공격까지 언급하는 북한 정권과 화촌을 추구한 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이었는가?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 시도는 그동안 한반도 주변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무력화 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냉전, 북경 올림픽에 북한의 불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 세계의 러시아, 중국 등 전체주의 국가에 대한 경계 강화, 2022년 들어서 북한이 10여 차례의 미사일 발사, SLBM 발사, 핵선제 사용 언급 등으로 무산되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남북 관계 진전의 상징으로 역사에 남기려 했으나 관련국 중 아무도 진정한 관심이 없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란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라는 비난을 받았다. 윤석열 새 정부는 이를 교훈 삼아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기 바란다.

3. 비핵화와 대량 살상 무기 제거 없는 종전 선언은 안보 무력화이다.

1991년 남북한은 비핵화협정을 맺었으나 북한은 이를 어기고 NPT에서 탈퇴하고 핵을 개발한 것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언급하는 바같이 한국정부가 "그동안 북한과 얼마나 많은 합의를 해왔나, 수많은 합의 중 의미 있게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종전선언만 갖고 될 일이 아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간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지고 지켜지게 될 것이다.

북한을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그들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를 대할 것으로 기대하면 위험해진다. 우리의 힘을 기르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 안보 정책이다. 국가 안보를 발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이라는 위험한 도박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의도로 그토록 집요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한 것인지 혹날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종전선언이란 핵 개발과 서울 불바다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의 호전성을 간과하는 허구적 전략이다.

북한의 평화협정 타령에 못지않게 집요한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캠페인은 임기 마감으로 미국과 북한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임기가 마감됨으로써 더행히도 무산되었다.

북한은 2022년 4월 5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의 "대남 핵 타격" 위협 발언에 이어 4월 17일 최전방 지역에서 한국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전술핵 탄도미사일 2발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북이 신형 전술핵 미사일의 최전방 배치를 예고한 것이다. 북한 최전방 지역에 집중 배치된 장사정포 방사포는 유사시 서울 불바다를 실행시키는 전략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하여 문 정권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종전선언이란 너무 남북현실의 상황에 맞지 않는 허구적 전략이었다.

지난 5월 4일에 을해(2022년) 14번째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3일 앞둔 5월 7일 북한은 15번째 미사일(잠수함 탄도 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을 발사하였다. CNN은 북한이 5월 중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언제든지 핵을 쏠 수 있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 선제타격" 발언 후 첫 무력시위다. 4월 23일 김정은이 입기를 마치는 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는 진심이 아니라 대남 기만술임이 드러나고 있다. 김정은은 또한 전술핵무기를 휴전선 전방에 배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입기 만료를 하루 앞둔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며, 문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이 전혀 한반도의 상황에 맞지 않은 시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5. "정권방탄법"이라고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서명은 헌법불합치 행위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을 거부했어야 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이라도 입법과정이나 내용이 헌법을 위반한다면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치를 위한 대통령의 의무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과 정권이 저지른 불법들(세계 최고의 기술인 원전을 증단시키기 위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30년 지기 당선을 위한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대통령 딸 가족이 연루된 회삼톤 수백억원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 사건, 이재명 연루 대장동 게이트 등) 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비리 방탄법'을 즉시 서명하고 공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을 옮기는 건 백년대계라고 반대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어론 수렴도 안 하고 추진한다고 비판해 놓고, 74년 시행해온 국가 사법 체계를 뒤흔들 검수완박법을 서명 공포하였다. 이것이야말로 헌법불합치 행위다. 민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추구하는 법치주의는 권력자가 법을 통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확대하는 연성 전제주의를 거부한다. 검수완박법은 힘센 자들이 결탁해 '법에 의한 지배'를 노린 반민주적 악법의 결정판이다. 문 정부가 합법적 다수결로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졸렬정의 이른바 '적폐 청산' 이었고 중간 지점이 조국 사태와 언론중재법이었으며 그 종착점이 바로 검수완박법 통과였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법 위의 성역(聖域)인 '사회적 특수 계급'을 창설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헌정 74년 사법질서를 무너뜨렸다. 검수완박법은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성이 판결받아야 한다.

6. 윤석열 정부는 한편으로는 국가의 사법체계를 뒤흔든 검수완박법을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이 판도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도록 해야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한 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문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만료를 불과 1주일 앞두고 정권방탄법을 통과시켰다. 졸속 입법 대못을 박은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 정권 방탄법을 강행하면서 "처리 안 되면 문재인 청와대 20명 감옥 갈 수 있다"고 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처벌받지 않게 하려고 소위 정권방탄법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는 6.1지방자치선거를 통하여 이 정권방탄법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정한 개인이나 계층의 이익을 위한 법률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고려한 바같이 이 법은 국민의 형사처분 청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헌법소원 대상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한 범위에서만 기소해야 한다면 법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 가해자가 제대로 심판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피해와 고통이 배가된다. 따라서 이 법은 특권층을 위한 법으로 서민과 약자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소간처럼 문 정권 방탄법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의 전제가 되는 검찰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도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해도 고발인은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한 조항도 평등권 침해로 위헌이 될 수 있다.

7. 윤석열 새 정부는 대북정책을 새롭게 설정하고 한미동맹 강화와 쿼드 및 오커스 참여로 한반도의 안보전략을 재정비하고,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에 합치한 조치를 통하여 법치주의를 세우기 바란다.

북한은 2022년 1월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 24일 장거리 미사일 및 핵실험 유예(모라토리엄)를 4년 4개월 만에 폐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북한의 핵투기 운반능력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말해준다. 윤석열 새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은 항상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대화채널을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새 정부가 "북한을 주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외교의 올바른 궤도 수정이다. 윤 정부가 문 정부와는 달리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면서도 대화 상대로 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투 트랙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힘에 의한 핵 억지력과 외교적 대화다.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토대로 유럽연합(EU)과 일본 및 아시아 전체로 외교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새 정부는 한국사회에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권방탄법이라는 검수완박법에 대하여 헌법에 걸맞는 조치를 한으로써 악법이 폐기하도록 하고 나라를 법치주의 위에 바로 세우기 바란다.

2022년 5월 9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제3회 온라인 ACTS 선교포럼 개최

선교대학원이 한국 선교사와 교회 위해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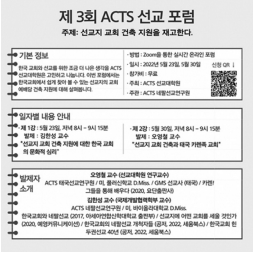
아신대학교(ACTS) 선교대학원은 제3회 온라인 ACTS 선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선교지 교회 건축 지원"이다. 이 포럼은 오는 5월 28일(월)과 30일(월)에 저녁 8시부터 9시 15분까지 Zoom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 선교포럼은 온라인으로 열리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참여 가능하다. 이 포럼의 대상은 선교사와 선교에 관심 있는 목회자들이며 참가비는 없다. 이 포럼에 참석하려는 사람은 아신대학교의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방문한 뒤에 "제3회 온라인 ACTS 선교포럼"과 관련된 게시글에 포함된 구글 링크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이메일로 줌 주소와 비번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선교지 교회 개척 지원'이다. 5월 28일, 김한성 교수는 '선교지 교회 건축 지원에 대한 한국 교회의 문화 심리'에 대해 발표한다. 김 교수는 2020년에 '선교지에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2022년에 '한국 교회의 베랄 선교 개척지들'(2인 공저), '한국 교회의 한류 선교 40년'(10인 공저) 저술하며, 최근 한국 선교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5월 30일, 오성철 교수는 "선교지 교회 건축과 태국 카렌족 교회"에 대해 발표한다. 오 교수는 기독교 인구가 1퍼센트도 안 되는 불교 국가인 태국의 소수 민족인 카렌족과 함께 20년 이상 사역해 오고 있다. 오 교수는 2020년에 출간한 책인 '카렌! 그들을 통해 배우다'에서 카렌 족의 성숙한 신앙 실천을 소개했다.

한편, 제1회 온라인 ACTS 선교포럼은 2021년 5월 31일, 6월 7일, 6월 14일 등 총 3회 열렸다. 이 포럼은 "E문화권 선교재생산, 어떻게 가능한가?"의 주제로 김한성 교수가 선교 역사적 관점에서 선교재생산에 대해, 김종구 교수가 동북아 A국의 E문화권 선교 운동에 대해, 오성철 교수가 태국 카렌족의 태국인 선교에 대해 발표했다.



서울모테트합창단 제120회 정기연주회

브람스 '독일레퀴엠', 강혜정 · 사무엘 윤 출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프로합창단으로 1989년 창단 이후 33년간 순수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감동의 음악을 선사해 온 서울모테트합창단이 오는 5월 28일(토) 오후 5시, 롯데 콘서트홀에서 연주회를 갖는다.

(재)서울모테트음악재단이 주최 · 주관하고 서울문화재단 · 서울특별시 · 기쁨병원 · 대장스틸이 후원하는 이번 연주회는 특별히 '위로와 평안의 노래'라는 부제로 코로나 시대를 살며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의 힘을 북돋아 드리고자 브람스의 독일레퀴엠을 선보인다.

진혼곡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레퀴엠은 일반적으로 라틴어를 토대로 진행되지만 독일레퀴엠은 신학적인 조예가 깊었던 브람스가 자신의 신앙적 통찰에 따라 사람들이 뜻을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가 아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불리기를 원했으며 루터의 독일어판 성경의 구절을 가사로 작곡했다. 신실한 루터교 신자인 그는 삶과 죽음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이루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한 신앙적인 노력을 이 작품에서 죽음의 평화와 안식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죽음 뒤에 남겨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훈하는 내용으로 현재 인류가 당한 고난의 상황과 가장 잘 맞물아 있기에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참 평안길로 안내하는 시대를 초월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공연에는 독일레퀴엠 최고의 독창자들을 만날 수 있다. 뉴욕타임즈로 부터 "그체롭고 유연하며, 너무 달콤한 소프라노"라는 극찬을 받고, 국내 최정상급 소프라노로서 오르토리오 분야의 탁월한 연주력을 선보여온 소프라노 강혜정과 바그너 음악축제인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주역으로 세계 유수의 극장에서 활동하고 독일 뮐른 오페라극장 종신 가수이며 세계에 한국 성악의 위상을 드높여온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이 출연한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탁월한 전도, 능력전도!

매일 한 시간씩 노방전도, 공원전도, 신호등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마음으로 복음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전도를 점점고 몇 번 몽안 전도를 했지만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갈급하던 중에 가족세트전도 대표 박영수 목사를 소개받고 현장에서 강력한 영권으로 영접기도를 하고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받고 교패까지 붙이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가족세트전도 총재 박영수 목사를 초대해서 전도집회를 열었습니다. 놀라운 도전을 받고 '바로 이것이다!' 하는 감동이 왔습니다.

남편 목사는 '한 번의 생각려니..' 생각 했었는데 집회를 마치고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 되는구나!
예배할 곳이 생겼구나!
연결이 되는구나!
열매로 이어지는구나!

이번집회 때 현장에 나가서 한 시간에 교패를 10개나 붙였습니다. 또한 그들이 영접기도 받고 나와서 기념사진까지 찍어주며 적극 호응을 해 주는 것을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세트전도 집회를 만나게 하신 후 우리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전도 집회 후 곧바로 전수받고 습득해서 기도하고 현장으로 나가 능력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할 수 있는 잘도는 가족세트전도를 적극 추천합니다!

광주 행복한교회 송혜정 사모 올림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을 위한 특별 사진전

"기증인의 몫까지 두 배로 행복하게 살아주세요"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이 세계 곳곳을 자유롭게 여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해외장으로 장례를 치뤘어요. 바다를 돌고 돌아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들도 한 번씩 만났을까요.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아들의 못 다 한 삶이 이어지고 있겠지요."

지난 4월 14일, 인천 연안부두를 찾아 바다를 바라보는 김일만 씨(남, 77세)의 눈에 깊은 그리움이 일었다. 15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아들 故 김광호 씨(당시 29세)의 유해를 뿌린 곳이 연안부두 2부둔 부표였다. 아들이 떠난 후, 홀로 남은 김 씨는 아들이 그리울 때마다 연안부두를 찾아 하늘나라에 있을 아들에게 안부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 아들의 장기를 이식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아들의 건강한 삶도 함께 기원한다.

기쁨의 달을 맞아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장 박진탁)는 5월 11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갤러리라메르에서 사진전 '장미하다'를 개최했다. 이번 사진전에는 김일만 씨와 같은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및 생명을 이어받은 이식인들의 일상이 담긴 사진이 전시되어 대중들을 만난다. 장기기증인의 유가족 및 이식인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은 국내에서 최초로 진행되어 의미를 더한다.

"생명의 은인이자, 두 번째 가족입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하 본부)가 주관하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하 코노스)이 후원하는 이번 사진전의 오픈 기념식이 11일, 오전 11시에 진행됐다. 오픈 기념식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20명과 간, 폐 등의 장기이식인 및 그 가족 8명, 그리고 재능나눔 사진작가와 본부 및 코노스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과 생명나눔의 주인공들이 한 자리에 모여 테이프 컷팅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장미하다' 사진전의 시작을 알렸다.

'장미하고도 이름답다'라는 뜻을 지닌 '장미하다' 사진전에는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모임인 '도너페밀리'의 회장 강호 씨가 참석해 장미하고 이름다운 생명나눔을 실천한 기증인과 가족들의 사랑을 기리는 기념사를 전했다.

CTS다음세대운동본부와 해피코리아 업무협약식

다음세대 사역 협력에 관한 교육선교비전 구현 업무협약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의 다음세대 사역의 확장과 교육선교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사)해피코리아(이사장 채정남)와 대한민국의 건강한 리더십을 세우고 나아가 세계의 어린이 교육선교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식이 13일(금) 오전9시 CTS컨벤션홀에서 진행했다.

2016년 '해피광주'란 이름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 (사)해피코리아는 다음세대에게 더 행복한 유산을 남겨주고자 미래 지도자 육성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류 보편적 기독교인 '행복'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도록 돕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인사말을 전한 CTS 김경철 회장은 "계속되는 출산율 저하속도가 너무 빨리 오는 상황에 다음세대 사역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사)해피코리아와 함께 연합해 다음세대를 훌륭하게 섬기고 모든 분야에 우리 다음세대들이 세워지길 바란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만령의 군대를 얻은 것 같이 기쁘다."고 전했다. 최영남 이사장은 "다음세대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줄지 고민했는데 이번에 CTS와의 연합을 통해 다음세대와 교사들을 잘 섬기길 바라며, CTS에 큰 열매가 맺어지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 · 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사랑의집 연혁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그런 말씀 어디 있겠나이까!

골다공증 환자처럼
영혼과 육체에 구멍이
숭숭 뚫린 내 모습을 보나이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살며시 파놓은 작은 구멍들.
하늘이 무너진 양 마음 잃은 내 모습을 보나이다.

어그러진 환경 보며 자지러지게 놀라는 심령,
구멍으로 채워진 허한 마음,
지쳐버린 내 모습을 보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이 양약 되어 (잠 3:8)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니
이 같은 놀라운 그런 말씀 어디 있겠나이까!

마음을 지키는 일이
생명의 근원되어 나를 살린다니
이 같은 소망의 그런 말씀 어디 있겠나이까!

말씀 믿고 따르면
육체의 건강이 된다니
이 같은 축복의 그런 말씀 어디 있겠나이까!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나의 뼈를 견고케 하신다니 (사 58:11)
이처럼 귀한 그런 말씀 어디 있겠나이까!

오늘은 잠언 3장을 읽는 날
숨겨놓은 말씀의 보석이 여기도… 저기도…
보물 찾는 이 시간 귀하고 귀하다.
(잠 3:5~6, 잠 3:8, 잠 4:22~23, 사 58:11)

사 설

깨어있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종말을 향해서 가는가? 종말이 어느 시점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인류는 종말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다. 칼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겔 7:15)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종말을 향해가는 징조들이 지구촌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하는 단어다. 지금 전 세계의 곡창지대들이 망가져 가고 있다. 따라서 기아가 창궐하고 있다. 해만 무서운 것이 아니다. 처처에서 기아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흑토지역, 북미의 프레리, 아르헨티나의 팜파스 등 세계 3대 곡창지대들이 망가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식량생산 국가인데도 생산에 부진을 겪고 있다. 밀수출 1위의 러시아, 5위의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미국과 아르헨티나엔 심각한 가뭄,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도시를 봉쇄하는 바람에 파종시기를 놓쳐 버리고 말았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기아 인구가 18%가 증가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760만~1310만명이 심각한 굶주림의 고통 속에 빠져 있다. 재앙 이상의 재앙상태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전체 인구 4분의 1이상인 3억4600만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을 겪고 굶주림과 영양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WFP-유엔 세계 식량 계획-데이비드 비즐리사무총장) 인류는 칼(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세계 4대 곡창지대가 이미 망성을 잃고 있다. 미국이 심각한 가뭄으로 캔자스, 오클라호마 등 밀 생산에 흉작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2위 밀 수출국이 강 수위가 낮아져 선적량보다 18~25% 적게 선적한다고 한다. 평균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팜파스 지역도 가뭄으로 콩, 옥수수, 밀, 수확이 감소되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밀 생산이 차질을 빚었으며 중국도 코로나 제로 정책으로 동북 3성을 봉쇄하여 쌀, 옥수수 파종시기를 놓쳤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련하고도 옹고집으로 똥줄 어리석은 일단의 지도자들은 전쟁에 몰두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도 말도 안 되는 뻔뻔한 궤변으로 전쟁을 정당화하려 하고 있으며 사르마트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랑했다.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원자폭탄 리틀보이(1만5000톤급의 2000배다)고 떠들어 댔다. 전쟁에서 코나에 몰리고 서방 세계가 똘똘 뭉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항하자 푸틴은 국제사회를 핵무기로 위협한 것이다. 한방이면 프랑스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정상적인 노를 가진 사람인 것 같지가 않아 보인다. 사람을 대량 살상하는 무기를 드러내 놓고 자랑하는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그를 국제사회는 비난하며 사람의 탈을 쓴 악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전인하고도 무참하게 살상하고도 이를 자랑삼는 막가파인 그를 광개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북한의 김정은 밖에는 없다.

그 놈이 그 놈이다. 뭐 눈에는 뭐 밖에 안 보인다더니 사람 죽이는 게 취미인가? 단체의 신곡에는 지옥의 편 이렇듯이 9중앙에 그곳보다 더 이렇듯에 떨어질 추악한 악마들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도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 전통시장상인들 지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빈대떡, 닭 강정, 소상공인들, 떡볶이 튀김집 전 집들..우크라이나는 해바리기씨유(식용유) 생산량 세계1위다. 러시아는 알루미늄52% 밀 66%를 수출한다. 포장용 알루미늄 포일 가격이 50%이상이 폭등 했다.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세계를 수렁으로 밀어 넣은 푸틴 그가 무슨 말로 포장해서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는 악마임이 분명하다. 이럴 때 지우를 사랑하고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돕고 위로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연대해야 한다. 한국의 국회의원들(총 300명 중 50여 명만 참여하는 냉담한 반응은 우리들 스스로를 외면 받게 하는 일이다. 세계에서 한국 같은 국회장면은 없었고 한다.

6개월째 초보로 마냥만 할 줄 알지 그가 얼마나 야무심이 투철하고 철저한 리더십의 소유자라는 것을 모르는 짐단 같다. 할 줄 아는 것은 거짓말, 왜곡, 뒤집어씌우기, 비난하기, 잡아떼기, 성추행, 성폭행 등등...그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모습이다. 그래도 또 찍어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눅 21:11) 깨어있어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하신다"

예총연 '세상을 이기는 통찰력' 주제로 춘계수련회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강용희 목사, 이하 예총연) 제17회 춘계수련회가 지난 5월 12(목)~13일(금) 양일간 속초 신세계영랑호리조트에서 '세상을 이기는 통찰력을 갖자'라는 주제로 개최되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감을 되새기고 다윗 충성된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협의회별 친교의 시간과 부흥회,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 있어 드라진 개회예배는 정창래 목사(선교협의회 회장)의 인도로 김신옥 목사(상임회장)의 기도, 배재학 목사(총무)의 성경봉독, 대표회장 강용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강 목사는 수 9:3-6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을 이기는 통찰력을 갖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통찰력을 가져야 하며, 통찰력을 가지면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예총연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서로 섬김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체험형 목사(상임회장)의 한금기도에 이어 유순임 목사(교문)가 축사했으며, 박선명 목사(서기)의 광고, 심만섭 목사(지문)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유순임 목사는 유영섭 이사장과 강용희 대표회장, 반정웅 사무총장을 단상으로 초청해 따뜻하게 격려하며 축복했다. 예총연은 연합운동을 통해 교회 제모습 찾기와 신학협의회 선교협의회 등 활발한 활동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한

●연락 처 : 편집국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02)2675-5183 FAX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 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 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양의식이 있는 자 3. 소양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대학이 인정하는 타 신학대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 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안명자격 부여
② 종합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6)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회차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7월 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 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기독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M.M)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과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학력 필요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